

# 카자흐스탄의 교육 기조와 인재 양성

방 일 권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작성일 : 2012년 8월 30일

## ■ 카자흐스탄 교육 부문의 성장 동향

- 교육 지원 정책
  - 2012년 현재 카자흐스탄 인구 중 15~24세 해당하는 층의 문맹률은 0%이며, 초 등학생의 학교 입학 비율이 99%에 달하는 만큼, 오늘 날 카자흐스탄 정부는 실질적인 교육 부문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정부의 교육 지원 정책은 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미래 자국에게 요구되는 인재의 양성을 위한 첨단 교육장비의 도입과 더불어 최근 세계 동향에 발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동향임.
- 국제화의 이행
  - 오늘 날 카자흐스탄 교육개발 프로그램의 아젠다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은 국제주의의 실현인데 이는 과거 폐쇄주의적인 교육 방식을 탈피, 해외 우수 대학기관에 자국 학생들을 파견 또는 국외 학생들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임.
  - 특히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국의 교육 체계가 중앙아시아 5개국과 카프카즈 지역 국가들 중에서 가장 선진화 되어있다고 자부하며, 국제화 및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어 지원할 것이라고 역설함.
- 학생 지원 방안
  - 카자흐스탄 교육부는 '볼라샹(Bolashak; 미래) 프로그램'과 같은 국제주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제도의 실현과 15,000여 명의 해외 유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개선해 나가기로 함.
  - 인문학 분야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미래 사회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직업 인재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 기관의 설립과 최신 교육과정 개설도 시행 중에 있다고 판단 됨.
  - 특히 '발라판(Balapan) 프로그램'은 유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 이전에 학습할 수 있는 기회인데, 지난 2011년도에는 2010년 대비 이러한 예비 학교의 수가 4.5배 이상 증가한 현상도 보임.
  - 향후 2015년도 까지 카자흐스탄 교육부는 국민들의 유아 교육을 위한 예산 80억 텡게(KZT)를 확보할 것이라고도 언급한 바 있음.

- 직업 교육

- 카자흐스탄 국가 기술직업 교육개발위원회 (TIPO; National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는 최근 효율적인 직업 교육을 위해 전공은 세부적으로 분류, 지역적 단위로 관리하면서 실질적인 시장 경제에서의 졸업생들의 경쟁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 카자흐스탄 교육 부문의 한계점

- 언어적 한계점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의 교육 정책은 지속적인 개진 양상으로 보이고 있으며 그 발전 가능성도 크나 아직까지 미흡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님.
- 우선 카자흐어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정부는 각 등급의 교육기관에 카자흐어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자국의 카자흐인 비율이 7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각종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독립 이후 세대는 카자흐어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한계점이 있어, 카자흐인이 아닌 슬라브계의 경우 따로 교육을 받는 등의 문제점이 수반되고 있는 경향임.
- 하지만 이러한 점들은 독립 카자흐스탄이 자국민의 정체성 강화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임.

- 사회구조적 문제점

- 상기한 외적인 요인 이외에 아직 중앙아시아 지역에 팽배한 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낮은 급여는 교사의 교육 열의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낳고 있음.
- 기타 교육의 부익부빈익빈의 상황도 현재까지 보이고 있으며 예를 들어 기부 입학과 편중된 과외 활동, 소위 명문 대학 졸업자들의 우대 등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판단 됨.
- 한국을 포함하는 세계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고소득을 지향하는 태도는 경영학과나 법학과 등과 같은 학생들의 수요를 늘게 했지만, 시민 사회에서는 막상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여 다른 취업을 원하는 준비생들도 증가하게 되는 문제를 낳게 됨.
- 결론적으로 카자흐스탄은 교육발전 정책의 수행을 위해 기존 문제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며, 이후 교육 선진국으로 이행을 위한 과도기적 한계점들을 잘 극복해야 할 것임.

## ■ 새로운 교육 분야의 개척

- 주요 육성 분야

- 카자흐스탄 교육부에 의하면 오늘 날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육성 및 개발 되고 있는 교육 분야는 총 5가지로, 에너지 개발, 원자재 가공기술, 자원

- 생산기술, 정보통신기술, 생활과학이 포함 됨.
- 특히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학문인 생명공학, 광화학 및 나노공학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교육에 필요한 자재들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 육성의 목표
  - 올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향후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국방력의 강화와 원자재 가공 기술 습득을 통한 원유 정제 처리를 목표로 두어 더 이상 해외 기술을 통하여 수행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임.
  - 또한 생명공학을 이용한 백신 개발과 레늄, 오스뮴, 우라늄 등의 광물질을 이용한 기술 등도 개발할 예정임.

## ■ 카자흐스탄의 인재 양성 정책

- 볼라샹(Bolashak) 프로그램
  - 카자흐스탄 교육 프로그램을 언급할 때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볼라샹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소개된 바 있지만 1993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임.
  - 이 볼라샹 프로그램 역시 국제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독립 카자흐스탄의 교육 기조에 맞는 체계이며, 자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다시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주목 받고 있는 체계임.
  - 현재 볼라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던 학생들은 소정의 절차를 밟고 국영기업과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 프로그램이 석사 및 박사과정까지 일반화 되어 고학력 인재 육성에 큰 일조를 하고 있음.
  - 지난 2011년부터는 볼라샹 프로그램에서의 교육자들을 따로 연수시키고 있으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음.
- 발전 전망
  - 기실 카자흐스탄 교육 체계는 독립 20주년을 경험하면서 많은 변화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교육적 질의 향상과 교육비의 상승, 커리큘럼의 개혁과 교육 언어 변화 등 최근 학교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강좌들도 등장하고 있는 추세임.
  - 오는 2020년까지 국가발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카자흐스탄 정부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꾸준한 가시적 지원은 물론 선진국에 상응할 수 있는 교육 수준의 향상과 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 참고 자료

- <http://www.edu.gov.kz/>
- <http://www.edu-cip.kz/>
- <http://nu.edu.kz/>